

경북자치경찰위, 드론 기반 농촌 순찰 추진

효율적 치안체계 구축 논의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경북경찰청,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손잡고 드론을 활용한 농촌 치안 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 드론 순찰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의 치안 공백 해소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6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드론 기

반 농촌순찰 치안 지원사업' 실무협의회를 열고 농촌지역 범죄 예방과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드론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경북자치경찰위원회와 경북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드론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전국 최대 면적과 최장 도로망을 보유한 경북의 특성,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지역의 치안 공백을 고려할 때 드론 활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드론 개발·운영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효율적인 치안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했다.

드론 기반 농촌순찰 사업은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전문 운영인력 양성, 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범죄 예방과 순찰, 응급상황 대응 능

력 향상도 기대된다.

박경준 경북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은 "드론은 경북지역 안전을 높일 새로운 치안 수단"이라며 "데이터 분석과 드론 활용 범죄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춘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단장은 "안전한 경북 조성을 위한 드론 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성훈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경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상만기자 dgdesk@idaegu.co.kr